



12일 강제징용 소송관련회견에서 정재원씨측의 배리 피셔 변호사(오른쪽 끝)가 재판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혜원 변호사, 정재원씨, 하기환 LA한인회장, 필리스 쉐 거주 부검찰총장. <신현식 기자>

“소송기각 노력 중단하라”

정재원씨 피고인에 촉구

2차대전 피해 배상청구 한인연합회(KAWWA 회장 주영봉)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한인회관에서 회견을 갖고 정재원(71)씨가 진행중인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의 피고인인 타이헤이요(Tai-heiyo)시멘트회사측에 현재진행

중인 소송기각노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서 정재원씨는 “이제까지 재판이 기각되지 않고 진행된것은 동포사회를 포함한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히고 “이 역사적인 재판이 일본의 잔학한 만행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